

사무엘상 6.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삼상 5장 1-12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5 장은 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보려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며, 언약궤까지 빼앗긴 사건 이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전쟁의 승리를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의 하나로 취급하며,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부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 받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백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의 신상 (1-5 절)

1)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이 있는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1-2 절)

- ‘아스돗’ = 블레셋을 대표하는 5 대 도시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서쪽 약 53km 지점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성.
- ‘다곤 신’ = 블레셋의 초목신으로, 이름의 뜻은 ‘고기’. 신상의 형태는 윗부분은 사람의 형체이고, 아래 부분은 물고기의 형체를 뿜고 있음. 고대 문헌에는 바알이 다곤의 아들로 종종 등장함.



➤ 주목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둔 이유?

다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한 전쟁의 전리품이 아닌 일종의 희생 제물처럼 생각하여 신상 앞에 두었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고, 모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상 앞에 가져다 둔 결과 다곤의 신상은 볼품없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파손 되었습니다. (2-5 절)

- 첫째 날 아침 ->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짐 (3 절)
- 둘째 날 아침 ->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고, 신상의 몸체만 남음. -> 끊어진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신전의 문지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무엘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 한 신학자의 comment,

‘비록 사람들의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분명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곤 신의 무력함을 증거하셨다’

곧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두셨지만, 친히 블레셋의 신 다곤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시고,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96 편 5 절, “만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다.”

예레미야 10 장 10-11 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므로 언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왕국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세상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다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독종의 재앙으로 임하였습니다. (6-9 절)

1) 하나님은 독종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과 그 지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6-7 절)

■ ‘독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펠’ 이란 말로 ‘부어 오르는 종양이나 종기’를 가리킴.

➤ 7 절 주목 !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_____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곧 당시 아스돗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도록 결정하였습니다. (8-9 절)

-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이유?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중의 하나였지만, 그곳에는 다곤의 신전이 없었음.
곧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으로 말미암아 노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전이 없는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을 것...

-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가드에 임하였습니다. (9 절)

➤ 9절 주목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와 그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_____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만약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이 쓰러진 것과 아스돗과 그 지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저들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을 받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신호가 울려졌을 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시편의 저자는 가르칩니다.

(시편 49 편 20 절,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3.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12 절)

- 1) 가드 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에그론 성으로 보내졌지만, 결국 에그론 사람들도 언약궤가 가져오는 재앙의 두려움으로 언약궤를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10 절)
- 2)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함께 모여 언약궤를 실로로 돌려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망의 환난을 피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11-12 절)

4.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